

정읍 은선리 · 도계리 고분군 발굴 성과 공유

금제 장신구 · 철기 · 토기 등 다수 유물 확인... 백제사 중요한 연구 성과 주목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금제 장신구와 철기, 토기 등 다수의 유물이 확인되며 백제사의 중요한 연구 성과로 평가됐다.

정읍시는 전주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지난 18~19일 최종 지문회의를 열고 조사 성과를 공유했다.

지문회의에는 △강봉원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위원회 위원장 △권오영 · 김낙중 국가유산청 매장유산분과 위원 △최원규 원광대학교 역사 철학부 명예교수 △김재홍 국가유산청 사적분과 위원 △박경도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조사 결과와 향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에 분포한 270여 기의 고분 중 대표적인 황철식 석실분 56기를 포함해 2018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의 보수정비사업 일환으로 2022년부터 연차적 발굴이 진행돼 왔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총 9기의 백제 고분이 확인됐다.

고분 내부에서는 금제 장신구와 금동이식, 청동팔찌, 청동뒤꽂이, 구슬 등 장신구류와 철도자 · 관정 등 철기류, 광구장경호 · 병형토기 · 삼족토기 · 대부완 · 개배 등 토기류가 다수 출토됐다.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발굴조사에서 금제 장신구와 철기, 토기 등 다수의 유물이 확인됐다.

특히 금제 장신구는 백제 지방 지배세력의 성격과 교류 양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백제 중앙세력이 웅진기 초기에 중방 고사부리성 일대까지 지배력을 확장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이학수 시장은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백제 중방문화권의 성격을 밝히는 핵심 유적”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발굴과 학술연구를 이어가 정읍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박세혜 작가 ‘전주장’, 전국한지공예대전 대상

전주문화재단, 부문별 수상자 선정

전국한지공예대전에서 박세혜 작가의 ‘전주장’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9일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에 따르면 이날 심사위원회(위원장 신탁근)를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먼저 올해 공모에는 전통 32점, 현대 51점, 문화상품 · 기타 20점 등 총 103점이 접수됐다.

심사 결과 대상에는 전통부문 박세혜 작가의



박세혜 작가 ‘전주장’

다. 문화상품 · 기타 부문 최우수상에는 손미애

‘전주장’이, 최우수상에는 현대부문 박경희 작가의 ‘My Collection’, 우수상에는 전통부문 박인숙, 현대부문 손연화, 문화상품 · 기타부문 이수빈 작가가, 장려상에 김성란 · 권효선 · 허부용 · 배나현 · 정지교 작가가 각각 수상했다.

작가의 ‘미니경대’가 선정됐다.

대상작 ‘전주장’은 유물 고증을 바탕으로 한 팔걸 위에 안방 가구 비례를 맞추고, 고운 색지로 모란 · 나비 문양을 정교하게 시문했다. 또한 다양한 색한지 배접과 옷칠, 백동 장식마감이 조화를 이뤄 완성도와 깊이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10월 2일 오후 6시 2025 전주 국제한지산업대전(전주한지문화축제) 개막식이 열리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베이징국극단과 한 · 중 문화예술 교류 모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대표 국극 단체인 베이징국극단과 만나 한 · 중 문화예술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만남은 국립민속국악원이 추진하는 해외 교류 확대의 일환으로, 특히 관소리 · 창극과 중국 국극 간의 공통적 예술 어법과 서사 구조에 주목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베이징국극단은 1950년대에 창설된 중국을 대표하는 국극 단체로, ‘북방 국극’의 맥을 잇는 전문 예술단체로, 국극은 회극과 회극의 합성어로 베이징에서 발전한 음악극이며, 노래(唱) · 대사(念) · 동작(做) · 무술(打)이 결합된 중국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 공연 양식의 하나이며, 경극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장르이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청년 예술인 교류



△전통 공연예술 기반의 창작작 공동 개발 △조정 공연 추진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으며,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26)

무당요?

- 오 상 근 -

“수녀님 성씨가 강 씨잖아요. 왜 강 씨 성을 붙였어요?”
수많은 성씨 중에 왜 강 씨를 붙였을까. 동식은 자신과 같은 강 씨라는 게 흥미롭기도 해서 궁금했다.

“지금은 그런 환자는 없지만 예전엔 이곳 호암마을이 한센인 마을이었어요. 제가 이 마을에 온지 40년이 다 되어가는데, 물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지냈지만 많은 세월을 이곳에서 보냈지요. 이 마을에 살던 한센인 중에 강 씨 성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처음에 제가 이태리에서 와서 한국말로 서툴고 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한국말을 배우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물론 저도 그분을 위해 일을 하긴 했지요. 처음에는 치료라든가 재활해서 시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는데, 한 1년 쯤 지나서부터는 아주 저하고 친하게 되었어요.”

“그 분이 강 씨 성을 쓰라고 했군요?”
“거의 35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강 씨 성을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인연이 깊으셨나 봐요.”
“참 안타까운 분이었어요.”
“병 때문에 돌아가신 건가요?”
“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것도 있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그분의 아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결혼을…….”
“그건 아니에요. 어려서 때 알고 있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무당이었어요.”
“무당요? 그러면 그 무당이 강 씨 성을 쓰는 그분의 아이를 낳았던 말인가요?”

루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는 사이 차는 교향병원에 도착했다.
모시고 온 노인도 치료를 받아야 했고 루이자도 무릎을 진찰 받아야 했으므로 강 씨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할 수 없었지만 동식은 루이자에게 들은 강 씨에게 마음이 끌렸다.

강 씨는 어떤 인연으로 무당을 만났고 또 나병환자인 강 씨는 사람이 어떻게 무당과 남녀관계로 발전하여 아이까지 낳게 된 것일까. 그런데 왜 아이가 태어난 지 일 년 만에 강 씨는 죽었을까.

모시고 온 노인의 치료도 끝나고 루이자의 무릎 진찰도 끝나, 세 사람은 돌아가기 위해 다시 승합차에 탔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그



러네요.”
루이자는 잠깐 근심어린 눈을 했지만 이내 원래대로 얼굴을 펴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 수술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수녀는 낙관적으로 말했다. 얼굴에 늘 미소를 띠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긍정적으로 둘러보는 수녀의 마음이 밝아 보여 좋았다.

“아까 병원에 오면서 말씀 하셨던 그 강 씨라는 분은 왜 돌아가셨어요?”
루이자와 마을 노인인 진료와 치료를 받고 있는 동안, 동식은 루이자 수녀가 말한 강 씨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어 온통 머리는 그 강 씨로 채워져 있었다.

“아이를 일 년 전에 그 무당이 낳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를 강 씨는 키울 수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태어난 아이는 이 마을에서 키울 수 없었어요.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마음에 병이 생긴 것 같아요. 한센병 치료도 등한시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약기를 잘 다뤘어요.”

“약기를요?”
“왜 농악 있었어요. 북, 장구 그런 거요. 무엇보다도 피리를 아주 잘 불었어요. 마을에서 농악대를 만들기도 했지요.”

루이자는 강 씨가 약기를 잘 다뤘다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동식은 그 아이와 그 아이를 낳은 무당이 더 궁금했다.

“강 씨는 분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면 아이를 낳은 그 무당이 키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 무당은 맹인이었어요.”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